대중문화 속 도서관 이야기

연체는 이제 그만~

글_ 전창호 (부산여자대학 도서관 사서)

국내에는 《사라진 도서관》이란 제목으로 번역된 스티븐 킹의 《The Library Policeman》은 작가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중편소설이다. 주인공 샘 피블스는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장은 반납일을 어길 경우 도서관 경찰을 보내겠다고 경고한다. 피블스는 대출한 책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연설을 이끌어내나 그만 책을 잃어버리고 반납기한을 넘기게 되어 점점 기묘한 사건으로 빠져든다.

이 소설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아이에게 롱코트를 입은 '도서관 경찰' 이 집으로 찾아와 처벌을 내린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했다. 킹은 자신의 아들이 도서관 경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서관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데 착안해 집필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인기 시트콤 〈사인펠드〉 시즌3의 한 에피소드는 도서관 경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적절하게 묘사했다. 주인공 제리가 20년 전 뉴욕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북회귀선》을 돌려받기 위해 북맨(Bookman)이라는 별명의 도서관장이 직접 제리의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그것이다. 실제로 도서관 경찰이라는 직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도서관 사서들의 집요한 반납독촉을 마치 경찰의 수사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연체자들에게 진짜 경찰이 종종 개입하기도 한다. 최근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워싱턴의 벌링턴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한 이용자는 연체료 150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 4월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스터링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제때에 반납하지 않은 어느 이용자는 2006년 6월에 유치장 신세를 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데이비스카운티도서관으로부터 부과된 792달러의 연체료를 체납한 23세의 한 이용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용자들 처지에서는 그깟(?) 도서관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다고 경찰까지 나서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도서관에서는 연체에 따른 물적 · 인적 피해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서울의 어느 공공도서관은 연체도서를 회수하기 위해 독촉전화를 하느라 평균 하루 2시간 이상 매달려야 하기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호소한다.

연체자에게 전화를 걸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아 사서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단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리규정에 미반납 도서를 자연 손실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사비로 미반납 도서를 구입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가령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1관당 연평균 300~400만 원의 직원 사비가 손실도서 구입에 쓰이고 있는 지경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도서관 자료를 연체했다고 하여 외국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우리 나라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도덕적 양심을 기대하는 희망 수준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실 연체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필요한 자료가 연체되어 당장 이용할 수 없을 때의 실망과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도서관 고객들이여! 나의 사소한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불편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약속된 기한 내에 반드시 반납토록 하자.

이 글은 〈도서관계〉 2007년 5월호에 게재된 필자의 졸문 '도서연체 천태만상'의 일부를 대폭 인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찰칵, 도서관 풍경

미국 유학 중 방학이라 잠시 귀국한 딸과 함께한 회원, 그동안 방글라데시에 후원하는 아이의 사진과 편지를 가지고 와서 소개한 회원, 자원봉사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회원.

올해도 고전과 명작, 진솔, 상지 3개 독서회가 연합독서토론회로 뭉쳤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주제 책으로 '나와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구호' 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가슴 벅찬 비전을 서로 나눴다. 연합독서토론회는 매년 그 진지함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연합독서토론회 / 종로도서관 자료봉사과 최명자 사서)

도서관 소식

제 10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제10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도서관, 그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디지털도서관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09:00~17:20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 104호, 105호
- ■주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
- ■후원 :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한국전자출판산업전 Digital innovation of Book

(사)한국전자출판협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한국전자출판산업전〉이 개최된다. 첨단 도서관의 미래를 열어가는 업체들의 과학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살펴 볼 수 있는 전시와 "디지털도서관과 디지털 사서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린다. 이밖에도 전자출판산업전시, 전자책 독서퀴즈대회, 북토크쇼, 디지털 작가상 및 우수u-Book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 24일(토) [3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개회식 : 2007년 11월 2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일산 KINTEX Grand Ballroom